

여야, 연초부터 기사움... '임시국회 소집' 합의 못해

원내대표 회동...국힘 "이재명 대표 방탄 국회로 오해 받아"

민주 "안전운임제 연장 시급...산적한 민생현안 머리 맞대야"

여야가 새해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해 1월 임시 국회 소집 여부를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국민의힘이 "방탄 국회라는 오해를 받게 된다"며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겨냥하며 거리를 두고 있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을 위한 임시 국회를 방탄 국회로 둔갑시키는 치졸한 행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3일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는 1월 임시국회 개최와 관련, 아무런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3일 민주당이 요구하는 1월 임시국회 소집과 관련해 "필요하면 언제

라도 임시국회를 열어야 하지만 아무런 처리할 안건 없이 한 달간 임시국회를 그냥 여는 것은 옳지 않다"며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국민들로부터 방탄 국회라는 오해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꼭 필요한 일이 있으면 짧게 기간을 정해서 처리하고 국회의원들이 불체포특권 뒤에 숨어서 특권을 남용하는 일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며 "한 달 내에 열어놓고 별일을 하지 않고 또 끝난 다음에 임시국회를 연장하는 방식은 이제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민주

당이 임시국회를 열자고 한다면 어떤 안전이 필요하고 며칠의 기간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협의에 응할 것"이라며 "그렇지만 막연히 한 달 열어 놓고 무슨 일이 있으면 처리 하지는 방식의 임시국회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선 1월 임시국회 소집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일몰법 중 하나인 안전운임제의 경우 연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현장의 혼란이 큰 만큼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라도 1월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것이다. 새해 예산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소집된 12월 임시국회는 오는 8일 종료된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집권여당이 산적한 민생경제 현안, 안보 현안을 두고 국회 문을 닫자고 주장하는 것이 정당이나 하느냐"고 직격했다. 또 북한 무인기 도발과

관련해 "국회가 더 늦지 않게 본회의 긴급 현안 질문과 국방위 차원 정문회를 개최해서 군 대응 태세를 면밀하게 점검해야 한다"며 "해를 넘겨버린 일몰법을 비롯한 민생 입법, 정부조직법과 공공기관장 임기일치법 등 여러 시급한 법안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1월 임시국회 소집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여론의 부담이 있기는 하지만 '일하는 야당'의 모습을 내세워 여권과 차별화를 꾀하고, 대안정당으로의 면모를 부각시켜 정국의 주도권을 잡아가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반영하듯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과 만나 "(여당이 위원장을 맡은) 법사위원회에서 안전운임제 처리를 막으면 (소관 상임위원) 국토교통위원회로 가져와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밖에 없다"고 압박했으며,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대

표)검찰의 소환 요구에 당당히 임하겠다고 하는데 1월 임시국회 소집과 관련, 방탄 이야기가 왜 나오냐"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전남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신년 인사회에 이 대표가 불참한 것은 사실상 대통령실의 결례 때문이라며 여권에 책임을 돌렸다.

김의겸 대변인은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대통령실이) 지난달 22일 오후 2시에 이메일을 보내 당일 오후 6시까지 (참석 여부를) 답해달라고 했다"며 "야당 대표를 초청하는 관례를 따지지 전 (이는) 기본 도리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당 상임고문인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CBS라디오에 출연, "여러 가지로 끌려들더라도 대화를 해야 협치가 시작된다"며 "(신년 인사회에) 참석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민주당 원내대책회의...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홍근 "이태원 국조, 최소 열흘 이상 연장"

민주-유가족協 간담회...유족들 "하나마나 한 국조" 여야 질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3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 연장 문제와 관련, 국민의힘에 '최소 열흘 이상'의 연장을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만나 이같이 말했다고 이수진 원내대변인이 유가족협의회와의 간담회 후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박 원내대표는 3차 정문회를 비롯해 전문가 공청회, 보고서 채택 등을 고려하면 최소 열흘 이상은 확보돼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며 "주 원내대표도 (기간 연장) 필요성에 공감하고 내부 정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간담회에서 이러한 여야 협상 상황을 유족들에게 설명했으며, 거짓 증언을 하거나 출석을 거부한 기관 증인에 대한 고소·고발 등 책임을 묻는 조치도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유족들은 간담회에서 유족들을 한데 모아 대책본부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며 "이윤리 대통령 사과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이나 자진사퇴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국정조사 종료가 나올 앞으로 다가오는 가운데 유족들은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기간 연장을 촉구하면서, 그간 특위 활동 성과를 두고는 여야를 동시 질타했다.

유족들의 항의성 발언이 이어지면서 1시간으로 예정됐던 간담회는 30분간 더 진행됐다.

이종철 유가족협의회장은 "국정조사 기간은 반드시 연장해야 한다. 실질적으로 10일간 했는데, 무슨 공 북아 먹느냐"면서 "허울뿐인 증인을 세운 국정조사도 의미 없다. 북어포를 빼놓고 제사상을 차린 격"이라고 비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김종인 "중대선거구제 거의 불가능"

윤 대통령이 최근 언급... "현역 의원 결사반대해 성공 어려워"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언급한 중대선거구제에 대해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 나와 "내년에 당장 총선인데 지금 국회에 중대선거구제를 한다고 해서 과연 실현되겠느냐"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 현역 의원들이 선거구가 줄어들는 것에 결사반대를 하기 때문에 성공하기는 굉장히 힘들 것"이라며 "예를 들어 초선이랑 재선 의원들은 자기 선거구가 없어지니까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영호남 갈등이 중대선거구 한다고 해서 해소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경우에 따라서 중대선거구제를 해도 호남에서 또 민주당이 다 돼버리고 영남에서 국민의힘이 다 돼버리면 똑같은 결

과"라고 설명했다.

김 전 위원장은 "개헌이고 선거법이고 사회적인 큰 변혁이 있을 때나 가능한 거지 평상시에 그걸 추진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당선됐으니까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마음대로 뭘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사로잡힌 것"이라며 "제대로 대통령으로서 국민이 바라는 바를 이끌어가기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새해에는 더 어렵지 않다. 대통령이 새해에도 야당과 협조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하는 발언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김 전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강조한 노동·교육·연금 등 이른바 3대 개혁에 대해서도 "제도적인 뒷

받침이 되려면 의회가 협조적으로 나와야 한다"며 "야당과의 관계를 어떻게 좀 정상적으로 이끌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관련, "모습이 별로 안 좋다"며 "어떻게 해서 총선을 이길 수 있는냐는 것으로 당원을 설득하려 노력해야지 '윤심이 나에게 있으니 내가 유리하다'는 발상은 재발 좀 안 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자세"라고 비판했다.

또 "최근 당에서 일부 사람들이 '당심이 민심이다' 얘기하는 것은 국민에게 너무나 오만한 자세"라며 "민심이 당심이 될 수는 있어도 당심이 민심이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및 당분열 가능성에 대해서 "개인적인 리스크로 생각을 하는 거지 당의 리스크라고는 보지 않는다"며 "이재명 지지 세력과 비(非) 이재명 세력 사이에 갈등이 있지만, 선거 앞두고 분당해서 실익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은 안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합뉴스

광주시의회 연구단체, 정책연구용역 성과

7건 최종보고서...향후 정책 제안

광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가 '광주시민을 위한 공공성 기반 지구단위계획 제안 연구' 등 7건의 정책연구용역 최종 보고서를 내놓았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 12월30일 시의회 5층 예결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전체 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이번에 발표된 정책연구용역 성과물은 그동안 의원 연구모임의 자체 역량과 발표 프로그램을 함께해왔던 학계·전문가·시민단체 등과 협업해 의제 발굴을 통한 성과물을 만들어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주요 연구용역으로는 ▲공공성 지향 지구단위 계획의 방안을 제안한 '광주시민을 위한 공공성

기반 지구단위계획 제안 연구' ▲보행환경 조성과 개선을 제안한 '광주광역시 도보 및 보행환경 실태조사' 등이다.

정무창 시의회 의장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집행부에 대한 건전한 견제를 넘어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치열하게 연구하는 '일하는 의회'를 이뤄가고 있다"면서 "다양한 의제 개발과 정책 기능 강화를 통해 광주발전을 위한 실천적 대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연구 활동에 매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의회는 이번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광주시에 관련 정책을 제안하고, 최종 보고서는 2023년 1월중에 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할 계획이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p>전원주택 (1채) → 8,000만</p>	<p>상가매매(상무지구) (유형적합)</p>	<p>경매교육 [특수 전문반 기초반, 중급반]</p>																
<p>① 세컨하우스 ② 소형 주택 ③ 전기,수도,배수 완비 ④ 주말 하우스 최고 ⑤ 잔디,나무,일체 포함</p> <p>(장성댐 5분) (등산로 있음) (6M도로 접)</p> <p>010-6670-9800</p>	<p>▶ 중심 상업지구 (유형 적합) (6층,7층) = 140평 시세 → 10억 → 급매 7억</p> <p>보3천 월 380만 (용 4억5천)</p> <p>010-2614-9801</p>	<p>* 특수 전문반 모집 (10명)</p> <p>1) 기초반 (기초부터 실전) 2) 중급반 (실전부터 ~) 3) 특수반 (유치권,법지,지분) 4) 투자반 (투자가능한분)</p> <p>▶ 경매 물건 추천 ◀</p> <table border="1"> <tr> <td>북구 두암동 (상가주택) ▶</td> <td>감정가 3억9천 → 최저가 3억9천</td> </tr> <tr> <td>남구 임암동 (근린상가)2층 ▶</td> <td>감정가 5억1,600만 → 최저가 2억8,800만</td> </tr> <tr> <td>서구 매월동 (자동차상가 7층) ▶</td> <td>감정가 6억2,600 → 최저가 4억3,800</td> </tr> <tr> <td>광산구우산동 (근린상가)2층 ▶</td> <td>감정가 6억1,700 → 최저가2억7,600</td> </tr> <tr> <td>광산구소촌동 (대지 41평) ▶</td> <td>감정가 6억5,400 → 최저가 6억5,400</td> </tr> <tr> <td>북구우산동 (주택) ▶</td> <td>감정가 1억4천 → 최저가 8천300만</td> </tr> <tr> <td>서구화정동 (주택) ▶</td> <td>감정가 1억8,500억 → 최저가 1억2,900</td> </tr> <tr> <td>북구운림동 (아파트)백산블루 ▶</td> <td>감정가5억7,700억 → 최저가 3억2,300</td> </tr> </table>	북구 두암동 (상가주택) ▶	감정가 3억9천 → 최저가 3억9천	남구 임암동 (근린상가)2층 ▶	감정가 5억1,600만 → 최저가 2억8,800만	서구 매월동 (자동차상가 7층) ▶	감정가 6억2,600 → 최저가 4억3,800	광산구우산동 (근린상가)2층 ▶	감정가 6억1,700 → 최저가2억7,600	광산구소촌동 (대지 41평) ▶	감정가 6억5,400 → 최저가 6억5,400	북구우산동 (주택) ▶	감정가 1억4천 → 최저가 8천300만	서구화정동 (주택) ▶	감정가 1억8,500억 → 최저가 1억2,900	북구운림동 (아파트)백산블루 ▶	감정가5억7,700억 → 최저가 3억2,300
북구 두암동 (상가주택) ▶	감정가 3억9천 → 최저가 3억9천																	
남구 임암동 (근린상가)2층 ▶	감정가 5억1,600만 → 최저가 2억8,800만																	
서구 매월동 (자동차상가 7층) ▶	감정가 6억2,600 → 최저가 4억3,800																	
광산구우산동 (근린상가)2층 ▶	감정가 6억1,700 → 최저가2억7,600																	
광산구소촌동 (대지 41평) ▶	감정가 6억5,400 → 최저가 6억5,400																	
북구우산동 (주택) ▶	감정가 1억4천 → 최저가 8천300만																	
서구화정동 (주택) ▶	감정가 1억8,500억 → 최저가 1억2,900																	
북구운림동 (아파트)백산블루 ▶	감정가5억7,700억 → 최저가 3억2,300																	